

지역 소식통

정읍시, 배달앱 '위메프로' 크리스마스 감사 이벤트

민선 8기 정읍시의 핵심 공약인 정읍형 공공배달앱 '위메프로'의 성공적 안착을 기념해 위메프로 가입자를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정읍형 공공배달앱은 지난 5월 출시 이후 각종 할인 혜택으로 현재까지 7만 건 이상의 주문 건수와 매출액 16억8,000만원을 돌파하는 등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순항하고 있다. 시는 이 호응에 힘입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매일 100명씩 선착순으로 5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정읍형 공공배달앱은 할인 이벤트와 별도로 정읍사랑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결제금액의 1%를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 등 풍성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화수 시장은 "고물가 장기화 추세에 소비경기가 악화되려 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크리스마스 감사 이벤트를 통해 조금이나마 따뜻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홍예향' 수확 시작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정읍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새콤달콤 홍예향(레드향)의 수확을 곧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홍예향'은 만감류 중에서도 껍질이 얇고 과즙이 많으며 아삭아삭한 식감이 특징이다. 시에서 생산되는 홍예향은 상큼한 향과 달콤한 맛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정읍 홍예향은 비옥한 토질과 적절한 일조량으로 당도가 14브릭스 이상이며, 적절한 산도관리로 새콤달콤해 맛이 일품이다. 주 수확시기는 1월 중순부터 2월 상순으로 설명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높다.

시는 품질유지를 위해 농가들에게 고품질 만감류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수확기에 당도, 산도 등 품질 분석을 실시해 고품질 만감류를 출하토록 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내년 본예산 8018억 확정

부안군의회, 제34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서 어려운 재정여건 불구 현안사업 차질 없이 추진 기대

부안군은 지난 14일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이 8018억원으로 확정돼 사상 첫 본예산 8000억원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469억원(6.54%)증가한 7647억원, 특별회계는 10억원(6.54%) 증가한 371억원으로 총 479억(6.35%)증가된 규모이다.

이로써 본예산 규모로는 사상 첫 8000억원을 달성했다.

군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의 감소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예산의 구조조정,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투입 등으로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담아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은 지방세수입 373억원(4.87%), 세외수입 256억원(3.35%), 지방교부세 3048억원(39.86%), 조정교부금 등 165억원(2.15%), 보조금 3176억원(41.5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29억원(8.23%)이다. 세입예산 지방교부세는 올해 대비 262억원(7.92%) 감소한 반면 보조금은 465억원(17.16%)가 증가

해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 367억원(4.80%), 교육 78억원(1.03%), 환경 982억원(12.85%), 사회복지 1474억원(19.27%), 농림해양수산 2022억원(26.44%), 보건 99억원(1.2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04억원(1.36%), 교통 및 물류 275억원(3.60%), 국토 및 지역개발 537억원(7.02%) 분야는 소폭 증가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211억원(2.76%), 문화 및 관광 456억원(5.96%), 예비비 등 1042억원(13.62%) 분야는 감소했다.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는 농어업 분야와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 부안형 푸드플랜을 기반으로 한 먹거리 거버넌스를 확고히 하고자 부안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예산 35억 2000만원, 기초생활거점조정사업 3개면에 31억 6000만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9억원, 어촌뉴딜 300사업에 34억원, 섬발전사업에 45억원을 편성해 확정했다.

또 견고한 복지 안전망을 조성하고 건강하고 운택한 삶 영위를 위한 교육·사회복지·보건 분야는 사회보장제도 강화를 위한 생계·주거급여 등

171억원, 노인일자리사업 163억원, 정우문화센터 조성사업 11억원 등 따뜻하고 세심한 포용적 복지실현을 위해 노후화된 교육환경 개선, 으뜸 인재육성,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이 반영됐다. 관광 분야는 격포 오션 할링파크 조성사업 12억원,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175억원,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사업 27억원, 부안마실축제 15억원 등을 편성해 글로벌 휴양관광도시에 어울리는 관광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자했다.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사통발달 도로망을 연결하고 도시재생 추진으로 원도심을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해 부안을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12억원,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26억원, 격포 진입로 4차선화·포장 공사 15억원을 편성했으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 분야에는 중복지구 풍수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0억원, 격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4억원 등을 편성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예산 편성은 군정운영에 있어 군민의 참여와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군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적극행정으로 군민과 함께 부안군정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난 16일 고창군수, 서울시니어스타워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 733 일원에서 '고창 웰파크 호텔 & 컨벤션' 기공식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고창, 웰파크 호텔&컨벤션 기공식

군, 지역 관광산업과 일자리 창출 기대... 2025년 2월 완공 예정

대한민국 최고의 은퇴자 마을인 고창군 석정웰파크시티에 최고급 호텔과 컨벤션이 들어선다.

18일 고창군과 서울시니어스타워(이사장 이종균)에 따르면 지난 16일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 733 일원에서 '고창 웰파크 호텔 & 컨벤션' 기공식이 열렸다.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이종균 서울시니어스타워 이사장, 현운석 서울시니어스타워 사장, 오덕만 서울시니어스타워 고창웰파크시티 사장,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윤준병 국회의원, 김중호 (주)이노건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웰파크 호텔 & 컨벤션'은 대지면적 5만910㎡(1만5,400평), 연면적 9.686㎡(2,930평)에 지하1층, 지상 8층 객실 91개와 각종 편의시설, 600석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2025년 2월까지 짓는다.

고창석정웰파크시티는 석정온천 휴스파, 황토펜션 힐링카운티, 석정웰파크병원, 요양병원 및 노인복지주택이 자리잡고 세계에서도 주목하는 명품 은퇴자 마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종균 서울시니어스타워 이사장은 "웰파크 호텔은 업무와 휴식, 건강, 문화 등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공간 운영과 최고급 서비스가 제공된다"며 "컨벤션센터 연계행사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관광산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91객실에 달하는 웰파크 호텔과 컨벤션이 지어지면 고창관광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진정한 머물고 가는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성공적인 호텔 신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운영 4단계 협약체결

디지털 농업기술, 드론농업 등 4차 산업 맞춤형 커리큘럼 강화

고창군과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18일 오후 고창캠퍼스 농생명과학과 계약학과 운영을 위한 4단계 협약(2024년3월~2028년2월)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대접견실에서 심덕섭 고창군수,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고창군·전북대학교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사항으로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농생명과학과 4단계 사업 개설 및 운영 △고창군 농생명 산업 육성 △농생명 분야 전문인력 상호 활용 △농생명 분야 연구개발 및 교육에 관련된 장비 및 시설의 공동 이용 △향후 고창캠퍼스 정규학과 개설·육성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 있다.

고창군과 전북대학교는 2012년부터 협약을 맺어 고창캠퍼스에 농생명과



고창군과 전북대학교가 18일 오후 고창캠퍼스 농생명과학과 계약학과 운영을 위한 4단계 협약(2024년3월~2028년2월)을 체결했다.

학과를 운영하여 지역의 친환경 농업, 식품, 원예, 축산업, 유통 분야의 전문성 제고 및 지역 내 농생명산업의 질적 성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올해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에 한옥학과 정규대학 캠퍼스 개설을 통해 지역 내 청년인구 유입과 관련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내년도 예산 절감 노력, 시민불편 해소" 강조

이화수 정읍시장이 18일 영상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예산 절감 노력과 함께 시민불편 해소, 희망 2024 나눔캠페인에 대한 관심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국·소·실·과장과 읍·면·동장이 함께한 이날 회의에서 주요 현안을 공유하면서 "내년도에는 특히 불요불급 등을 고려해 예산을 효율성 있게 사용해 예산 절감에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담당 업무에 대한 법령을 숙지해 정확히 안내하는 등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하라"면서 "예산 조기 발주, 신속집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추진하고 있는 '희망2024 나눔캠페인'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했다.

이 시장은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할 수 있도록 희망 2024 나눔캠페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